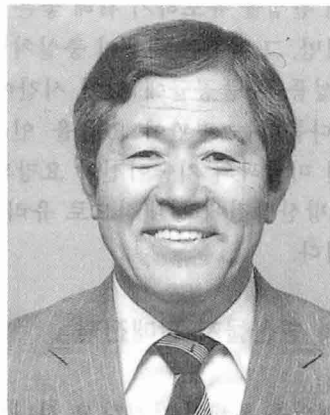


韓·美 방산협력은 진전되고 있는가

● 柳俊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한·미 방산회의 및 태평양지역국가 방산협력회의에서 느낀점을 중심으로 향후 한·미 방산협력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駐韓美 합동군사지원단장 演說

회의기간중 무엇보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주한 미 합동군사지원단(JUSMAG-K) 단장인 하리(Fred N. Halley) 장군의 연설내용이었습니다. 주한 미 합동군사지원단장은 향후 한국방산시장의 규모는 대단히 클것이라고 하면서, 이와같이 좋은 방산시장을 대상으로 미국업체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이 방산부문에 소비하는 자금은 예전의 FMS 차관이나 군사무상원조에 의한 자금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 스스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방산을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미국의 방산장비를 무조건 채택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후 미군의 장비로 무장하였고 미군의 교리에 의해 훈련하였으며, 미군의 작전전술원칙 및 준칙에 의해 전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오면서 그들의 주요장비를 거의 사용하다시피 하여, 오늘날 미국의 무기체계에서 다른 유럽국가의 무기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한국 방산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이전을 기피하거나 협조를 잘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기술이전이 결정되면 유럽국가와 달리 미국은 기술이전시 최초에는 대단히 합의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합의되면 그 내용은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장비공급은 말할 것도 없고 운용요원의 양성, 구성품, 부품의 계속적인 보급 그리고 정비의 보장등이 어느나라의 내용보다 월등하게 양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 유럽국가는 기술이전에 있어 미국과 같이 한뼘음으로서 지원하기 보다는 최초로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그 이후는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특히 구성품, 부품공급에 있어 시간이 지날 수록 까다롭다는 평판이 있음을 인식하고, 가능하면 미국과의 기술이전이 요망되며 이는 한국 방산발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방산물자 판매전략

이번 회의를 통해서 감지한 또 하나의 미국 방산업계의 고민은 1992년에 EC가 통합된후 나타날 미국 방산물자 판매문제입니다.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 무역에서 태평양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지역보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무역의 중심이 아시아대륙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미국은 미·소간 새로운 데탕트에 의한 균축으로 인해 방산이 위축되고 많은 방산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방산판매지역을 잠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EC가 단일시장으로 되면 미국 방산물자를 많이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작전환경은 미국제 무기·장비의 사용에 있어 부적합한 점이 있기때문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자국 장비를 자국 기술로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제조·사용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중동에 미제무기를 판매 한다는 것도 미묘한 중동평화 문제에 비추어 볼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프리카에는 신생국이 많이 있으나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구입능력이 있는 나라 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주대륙

즉 중남미지역은 자금도 부족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가 무기판매는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아시아대륙 뿐입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 무기를 팔 수는 없는 상황이며, 동남아국가에 무기를 파는 것도 많은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등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으므로 이들 나라와의 관계로 인해 무기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기대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헌법상 무기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국이 소요하는 무기만을 구입하거나 구성품·부품등을 구입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량도 많지 않을뿐 아니라 최근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전수받아야 할 입장이므로 일본에 대한 판매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주한 미 합동군사지원 단장이 언급한바와 같이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상당기간 방산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장비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장비를 쉽게 수입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미국의 첨단장비를 가져오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업체는 한국에 많은 물자를 팔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들을 신중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군사, 경제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번영이 있었겠는가를 생각할때, 미국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새로운 엘리트들은 과거의 한·미관계를 잊어버리고 오늘날의 번영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같이 생각하여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감이 없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시장경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여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구매자가 사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예전부터의 오랜 맹방이자 안보상 최전방에 위치한 한국에 대해 지역적인 방위뿐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한·미 방산노력을 위한 새로운 합의

한·미 방산회의가 끝난후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미국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수한 미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본인은 C조에 속해 플로리다주 올란도시 근처의 방산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특히 예전같으면 유도탄 제조회사는 우리가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업체 스스로가 보여주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동북부지역으로 간 A, B조에서도 이러한 유도탄회사를 견학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앞으로 미국의 방산물자 판매와도 다분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좋은 방산시설을 봄으로써 매우 유익한 방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서 얻고자 하는 기술이전과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서로 파악할수 있었다는 것은 큰 수확이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방산회의가 끝난후 한·미 양측에서 방산중진 10여 명씩 모여 제6차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는 한·미 방산정

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 성격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합의된 2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는 한·미 양국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의 강화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양측 대표들이 얼굴을 익히고 회사를 소개하며 협력과 상담을 벌이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한·미 방산업체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 양국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와같은 맘모스회의는 가능한 지양하고 그대신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내용 있게 문제를 논의하며, 양국 정부에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한 후에 이를 전체 방산회의시 보고하고 인준받으며, 시행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회의운영방법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一笑一少一怒一老

부부의 생각차이

결혼 10년째를 맞은 부부가 한가한 주말 오후 이것저것 정담을 나누다가 2층에 새로 이사온 신혼부부로까지 화제가 번졌다.

「이번에 이사온 사람들은 부부애가 대단해요.」

『어쨌길래』

「남편은 출근할때 항상 아내를 안아주며 뽀뽀를 해주곤 하던데요」

『나도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않죠?」

『응. 아직 그 새댁을 소개받지 못했잖아』

따라서 금년 9월말에 있을 예정인 제7차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에서는 로비 목표를 설정하고, 한·미간의 의견을 조정, 종합하여 양국 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사항은 한·미 양국에서 지금까지 방산협력활동에서 현저하게 공이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활동이 연연중에 확산되어 한·미 방산관련인사나 기관, 단체에서 한·미 방산업체 활동에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1988년 한국측에서는 10여년간 미국방위준비협회(ADPA)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한·미 방산회의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퇴직한 Miley 大將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절충교역(Offset)에 대한 인식

한·미 방산회의후 개최된 태평양지역국가 방산협력회의에서 특히 캐나다와 호주는 국방면에 있어서는 자급자족하려는 의지를 엿보였고, 또한 이들 국가는 미국사람이 싫어하는 절충교역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 국가의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미국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 같았으나 한국의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무척 비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회의중이나 사교활동등의 기회가 있을때 마다 미국 방산업계 대표들에게 『왜 한국의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소리가 크고 캐나다, 호주에 대해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가』하고 물었더니, 이들의 답변은 캐나다와 호주는 같은 서양인으로서 절충교역을 계획하는 사고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충교역을 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일찍 결정해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달리 의사결정과정 내지 행정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관계기관에 절충교역을 신청하게 될때 미리 미리 결정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면, 신청인은 미리 미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제출후에도 한국정부에서 신속히 가부를 결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기의 발전추세가 빠른 것을 감안할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을 텐데 이 과정이 느림으로써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회의후 산업시찰시 몇몇 미국 방산업체 대표들에게 절충교역의 당위성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오히려 그들은 한국정부가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미국정부 관리들이 한국의 절충교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지역국가 방산협력회의의 결과

다음은 미국이 주최하여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태평양지역국가 방산협력회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미국등 11개국을 초청하였으나, 참가한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이 회의를 좀더 활성화 시킨다면 태평양연안의 국가들이 태평양지역 및 아시아의 평화유지라는 측면에서 좀더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태평양지역국가 방산협력회의에서는 美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위원회(DSB)의 보

고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를 내다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태평양지역국가와의 방산협력에 대해 연구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NATO와 같이 태평양지역과의 방산협력을 권장하는 기구가 美 정부내(국방부)에 새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평양지역과 방산협력을 하려면 정부조직 자체가 좀더 정비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입니다.

둘째는 미국이 기술보호에만 집착한다면 장차 세계에서 기술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본인도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1989년초 미국 우주 및 전자전기협회의 세미나에 초청되어 연설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세미나의 연설에서 본인은 1956년 약혼을 하고 육군 대위로 미국 보병학교에 유학갔을때 구입한 General Electrics사 제품의 전기다리미를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다리미의 내부코일이 한번도 고장난 적이 없고 밖의 코드선만 한번 교환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미국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제조업이 많이 후퇴되고 서서비스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기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美 국방과학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미국이 좀더 많은 투자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조만간 세계의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정부내 관리들에게 좋은 충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는 미국과 아시아국가와의 방산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언급에서는 일본을 미국의 대등한 방산 동반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건설적인 방산 동반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한국과 손잡고 방산을 하게 되면 미국업체가 이익을 볼 것이므로, 공동생산과 같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며, ASEAN 및 대양주국가에 대해서는 지역협력을 위하여 지원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맺는말

끝으로 본인이 이번 방산회의를 다녀와서 얻은 결론은 한·미간 방산협력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 미합동군사지원단장이 한국방산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나 美 국방과학위원회가 한국을 건설적인 방산동반자로 규정한 사실 및 산업시찰시 미국이 유도탄 제조회사를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에게 보여준 것등은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방향을 잘 감지해서 어렵더라도 맹방인 미국과 손잡고 방산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전통적인 한·미 양국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유사시 미국의 안보지원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방위산업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방산업계간에 협력과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미간의 현안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글이 관련기관 정책수립자 및 방산업계 대표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